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박영만 | 인천교육대 초등교육학과 교수

필자는 이번 주제를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라고 삼고 싶다. 왜냐하면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더불어 하는 '교육과 연구', 시간만 나면 매달리는 것이 '연구'와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학의 주인이요, 학문의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이다. 누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학문의 성장이 주는 뿌듯함과 보람이다.

나의 학문적인 관심은 언제나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가르치며 배우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들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왜 그러한 사회와 사람을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하는 점이다. 내가 특히 내 학문인 교육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상 사회와 이상적인 사람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을 비교하고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금 세계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몰고 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당연히 대학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오랜 역사를 두고 발달해 왔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변혁과 개혁이라는 과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내가 느끼고 겪고 있는 문제 의식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사명감에 대한 사회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연구, 교육, 봉사라는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학의 사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매우 현실적인 간격을 보인다. 대학의 존재 의미는 바로 사회에 대한 봉사이며, 봉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학은 학문을 진흥하고, 올곧은 선비 정신을 함양하여 쓸모 있는 인재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인들이 바라는 것은 명문 대학의 입학과 졸업이 곧 입신 출세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정성과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려 하고 있다. 요즘에는 이러한 사고에도 다소의 변화가 있어서 명문 대학보다는 취업과 전망이 좋은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소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향하려는 것은 대학을 통해 입신 출세를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은 바로 대학생들의 학구열

과 학과 선택, 학과를 공부하는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선호하는 부문에 경쟁이 심하게 되고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은 학문을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 학문의 참다운 즐거움을 만끽하기보다는 시험 준비 과목이나 실용적인 도구로 보려는 경향이 짙게 된다. 다양한 학문의 발달이 인접 학문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는 종합 학문을 하지 않는 학자들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학문이 경쟁의 도구로 그 의의와 가치가 폄하되어서 최소 학문은 존재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물론 인간 생활에 학문이 기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문은 그 자체의 논리로 그 가치와 의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양한 학문이 발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건전한 사회의 밑바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학문의 풍토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의 대학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대학이 존재하고 학생이 학문을 배워서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들이 너무 대학을 입신 출세 지향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사회 풍토도 문제려니와 이러한 사회 풍토에 분명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학의 힘의 크기와 질이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대학이 먼저고, 사회가 나중인가? 아니면 사회가 그러니까 대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생각의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다.

사회와 대학이 너무 밀접하여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이 망하면 사회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은 단지 대학만이 감당하고 맡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 내부의 갈등 문제이다. 설립자와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 교육정책 입안자와 대학 구성원의

갈등, 같은 식구인 대학 구성원간의 갈등이 있다.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건전한 갈등은 산모의 잉태의 아픔처럼 새로운 문화나 훌륭한 제도를 생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나 국가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보면 왠지 불안하고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매우 가까워서 이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처구니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석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맥락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이다. 상식과 양식에 따라 처리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사태라고 여겨지던 것이 엉뚱하게도 예기치 못한 사태로 돌변해서 극한적인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아서 불구 대천의 원수로 깊은 골을 나게 하는 일들이 대학 사회의 도처에 널려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겪은 것이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는 학생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마치 그랜드 캐년의 골짜기 같이 깊게 패인 적도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왜 자질과 학문도 충분치 못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감히 가르친다고 했었던 말인가 하는 후회 아닌 절망을 느꼈던 때도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아동과 중학교 청소년과 대학생을 두루 가르칠 수 있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의 아기가기함과 따뜻함과 보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쟁쟁한 음성과 천진무구한 미소가 매우 그립다. 그들과의 인간적인 사귀고 접촉의 아름다움은 내 평생 내내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마른 장작이 타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목마름과 천둥번개와 같은 감성의 번뜩임은 내가 가르친 중학생들의 모습이다. 그들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감동은 지금도 여름이면 캠프 파이어 때 붉게 타던 중학생들의 캐리커처로 클로즈업되어 오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대학생들은 내

게 가장 긴 별칭을 안겨 주었다. '인천교대에서 넘어야 할 산맥' 이 바로 나의 대학생 제자들이 내게 준 나에 대한 이미지가 담긴 애칭이다. 이 이미지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들이 내가 한 학문적 요구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그렇지만 적당히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과제도 적게 내주며 학점은 잘 주는 수업에 대한 선호는 아마 고금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신입생 MT 때나 농촌 봉사 활동이나 기타의 활동에 지도교수로 동행해 봐도 깊은 대화나 열띤 토론에 몰입해 볼 기회를 가진 기억이 없다. 왜 대학 교수가 되었나? 하는 의문 부호를 머리와 가슴에서 떨칠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셋째,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수들의 경험도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학의 주체인 교수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보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수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며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대학 문화의 건전한 창달을 위해서나 대학 구성원들의 열정을 조직화하는 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전혀 보람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학 일학년 과정에 교직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학의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과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론 강의의 신입 교수나 외부 강사들에게 배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처사가 이제 막 대학에 발을 들여놓은 신입생들에게 자칫하면 설익은 강의나 시행착오적인 교수법으로 인한 학문에 대한 오해를 인식시킬 위험이 있다고 본다. 더욱이 교수들은 석·박사 과정에만 매달리고 신입생들과 교수들의 인간적인 접촉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사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학자를 가다듬고 키워내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막 학문을 시작하는 학생들

에게 학문의 맛을 가장 세련된 방법으로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앞서 지적한 갈등도 중요한 일이지만 긍정적인 경험도 중요하다. 몇 년 전의 일이다. 앞에서 말한 바를 내 나름대로 실천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리 교육 대학은 과목수는 적은 데다가 수강생은 많기 때문에 마치 고등학교 수업 형태처럼 한 교수가 서너 반을 맡는다. 그 때 내가 맡은 반도 세 개 반이었다. 이런 경우의 문제는 반별로 그 내용이 비슷하거나 방법이 똑같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우리 교육대학은 오랫동안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별 경쟁은 물론 같은 반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심해 학습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부드럽거나 수용적인 자세가 부족한 편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미소의 훈련과 교사의 이미지' 라는 자기 훈련 프로그램을 과제로 내주었다. 매일 거울을 보고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느낀 인물에게서 교사로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조사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강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교육학에 대한 협동 학습의 분위기가 성숙해져갔다. 조별로 철학, 역사학, 사회학, 교육과정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등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와 주제를 정하는 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연구팀을 운용하는 데 따른 조직책의 선정과 운영 과정에 대한 무임승차 배제 전략 등을 교수와 함께 의논하게 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끔 연구실에서 모임을 갖고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강의 후반기에 각 조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고 미진한 부분은 다음 강의 시간에 서면 답변을 하게 했다. 이것이 미진하면 그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서면 답변을 하게 했다. 원래 교육대학은 가르쳐야 할 과목은 많고, 학생들의 강의 부담은 일반 대학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그것은 각종 실기 과목이 강의 시간을 학점의 거의 두 배

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넓게 배우지만 어느 한 과목이라도 깊게 공부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대학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제도적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마름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에 대학의 학문 탐구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의 새로운 강의 제도를 제안했다. '집중 강의'가 그것이었다. 토·일요일 하루 종일 마음껏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저녁 시간에는 강의실에다 싸이키조명을 설치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끝으로 촛불 의식을 가지면서 이 강의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신입생들의 반응은 대학의 학문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는 것 같으며, 마음껏 배우고 싶은 목마름을 어느 정도 축일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주기 위해서 점심을 먹은 후에 길이 나 있지 않은 학교 뒷산을 올랐다.

산에서 보는 학교의 모습을 말하게 하고 이 모습이 평소의 학교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하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지각이 수평적 시각에만 머물러 있어서 수직적 시각에서 그 공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 공간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확산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창의적이었다. 그들은 이 시각을 각자가 연구하는 주제를 확산적으로 보는데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된 오후의 세미나는 더욱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정말 학생들의 학구적

인 정열을 실감할 수 있는 오후였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사실 그 강의 하루 전에 졸업생 환송 행사 때문에 내 건강 상태가 거의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학습하니까 아프던 내 몸이 씻은 듯이 나아졌다는 점이다. 나는 강의 처음에는 강의자에 반쯤 누워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강의가 점점 활기를 띠면서 나는 일어나 앉아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교수와 학생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 날의 강의는 내게 대학 강의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것이었다. 나는 앞에서 말한 대학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말한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보람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제자들의 학문과 내 학문 연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실로 발길을 돌린다. **▶▶▶**

박영만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박사(교육철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연구학회 부회장,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한국인간과학연구회 이사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듀이교육론의 이해』, 『교육의 이해』, 『교육실습의 이해와 실제』(공저), 『듀이실험학교의 이론과 실제』, 『교원교육의 협력모형(PDS)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